

美 경찰서 로비에 대형 식칼 든 여성

등록 2019.09.28 14:25:51



【샐리나스=AP/뉴스시스】25일(현지시간) 미 캘리포니아주 샐리나스 경찰국이 트위터에 올린 감시 비디오에 찍힌 사진에 샐리나스 경찰서 로비에서 인질극을 벌이던 한 여성이 인질이 도망친 후 대형 식칼을 들고 서있다.

경찰이 이 여성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며 대치하는 동안 인질로 있던 여성은 무사히 탈출했으며 그 사이 경찰은 전기충격기로 이 여성을 제압했다.

경찰은 "이 모든 게 불과 2분 정도 사이에 이뤄졌다"라며 용의자인 22세 여성 마리엘 카푸롱을 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. 2019.09.28.